



배당락 이후 5일, 1년 전과의 비교

1. 21년 5.2조원 순매수, 22년 5.3조원 순매수

-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개인은 5.2조원 순매수
-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개인은 5.3조원 순매수
- 대주주요건에서 자유로워진 직후의 개인 순매수로 판단
- 순매도 주체가 기관이라는 점도 동일하나, 세부 기관별 스탠스는 달라짐
- 개인의 거래비중이 낮아진 것 또한 특징

2. 21년 KOSPI +5.7%, 22년 KOSPI -2.2%

- KOSPI 지수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 다수의 종목이 상장했음을 고려하면 체감 지수는 작년보다 낮은 상황
- 거래대금 크게 낮아짐. 개인의 거래가 급감한 것이 원인
- 신용용자 잔고 감소 또한 눈에 띄는 변화. 자금의 성격 변화를 암시

3. 21년 1월과 다른 22년 1월

- 21년 1월은 20년 11월~12월 급등의 분위기가 이어짐
- 대규모 IPO를 앞두고 있어 국내증시 신규 진입에 대한 유인은 낮음
- 한국증시 12M FWD EPS증감률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작년 초 높은 12M FWD EPS증감률이 기대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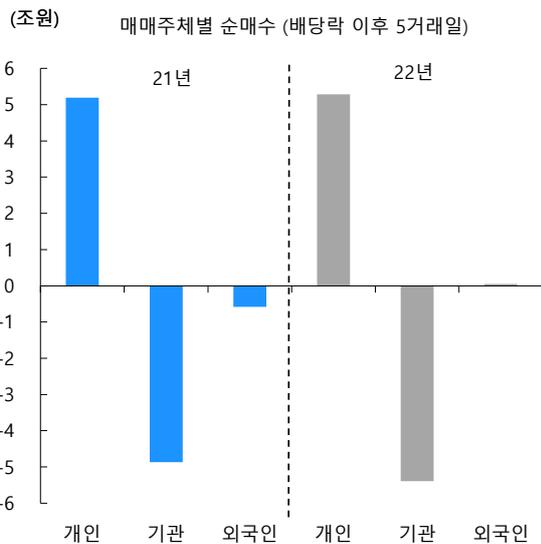
1. 21년 5.2조원 순매수, 22년 5.3조원 순매수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간 개인은 5.2조원을 순매수 했다.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진 직후의 순매수였다. 그리고 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간 개인은 5.3조원을 순매수 했다.

외국인이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대부분의 순매도가 기관에게서 나왔다는 점도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의 경우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이 전방위적 매도에 나섰던 반면, 올해는 연기금의 매도 강도가 낮아진 가운데 투신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올 초 금융투자의 매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배당관련 차익거래 물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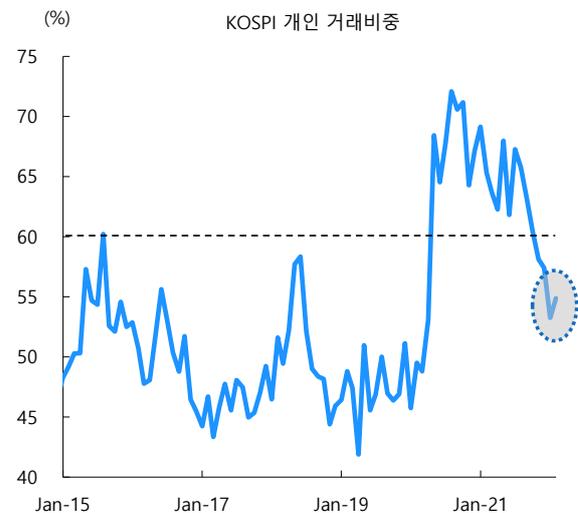
개인의 수급도 그 성격이 다소 달랐다. 거래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개인의 거래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즉, 개인은 작년과 같은 금액을 순매수 했지만, 매수만 했을 뿐, 매매를 하지는 않았다. 작년 10월 60% 미만으로 낮아진 개인 거래비중은 11월 57.4% 12월 53.3%, 1월에는 54.9%를 기록 중이다.

[차트1] 배당락 이후 5거래일, 5조원대 개인 순매수
방향성 없는 외인, 기관의 매도는 동일하다



주: KOSPI 기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개인 거래비중의 급감,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매매를 하지는 않았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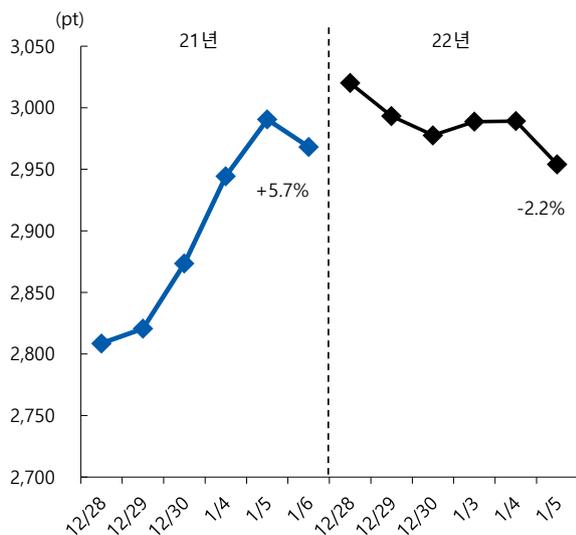
2. 21년 KOSPI +5.7%, 22년 KOSPI -2.2%

개인의 순매수 금액은 비슷했지만, 21년 초 증시 모습과 22년 초의 증시 모습은 사뭇 다르다.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KOSPI 지수는 +5.7% 상승한 반면,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지수는 -2.2% 하락했다. KOSPI 지수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지난 1년간 다수의 종목이 상장하며 시가총액이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체감 지수는 작년보다 아래에 있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거래대금의 급감이다.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KOSPI 거래대금은 23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1월 내내 KOSPI 거래대금은 단 하루도 20조원 아래로 하락하지 않았다. 반면,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거래대금은 평균 10.3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인의 거래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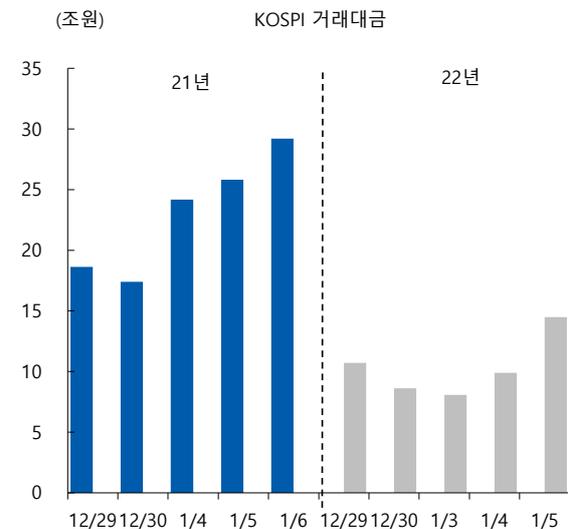
신용용자 잔고의 감소 또한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자금이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자금의 성격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예탁금도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의 상장이 있었던 작년 8월을 고점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인데,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앞두고 있어 이를 전후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차트3]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KOSPI 지수는 +5.7%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KOSPI 지수는 -2.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평균거래대금 23조원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평균거래대금 10.3조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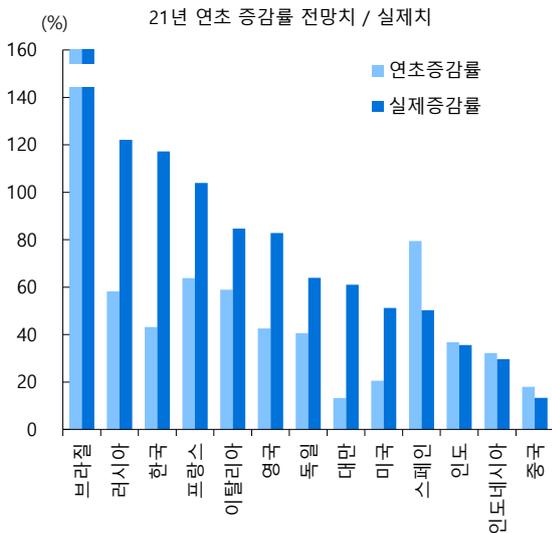
3. 21년 1월과 다른 22년 1월

20년 11월, 12월 2개월 연속 KOSPI 지수는 +10%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맞은 21년 1월 연초부터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다. 21년 초 2,873pt에서 시작한 KOSPI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장중 3,200pt를 돌파하기도 했다. 급등의 분위기가 이어졌던 21년 초와 22년 현재의 분위기는 다르다.

사상 최대규모의 IPO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종목에 투자하기는 부담스럽다. LG에너지솔루션의 첫날 시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 비중만큼 다른 종목을 비중이 감소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국내증시에 신규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을 낮추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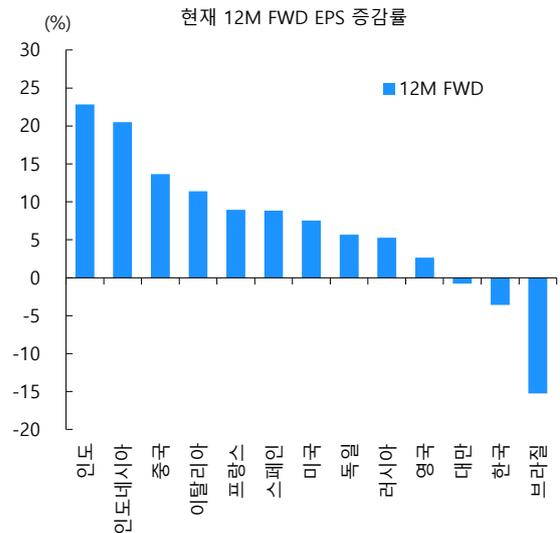
Fundamental 측면에서도 21년과 22년은 크게 다르다. 21년 초 한국증시의 12M FWD EPS 증감률은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20년 EPS증감률이 (+)를 기록한 몇 안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21년 높은 증감률이 더욱 돋보였다. 반면, 22년 현재 한국증시의 12M FWD EPS증감률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차트5] 21년 연초 한국증시 12M FWD EPS증감률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주: MSCI Index 기준 자료: IBES, Datastrea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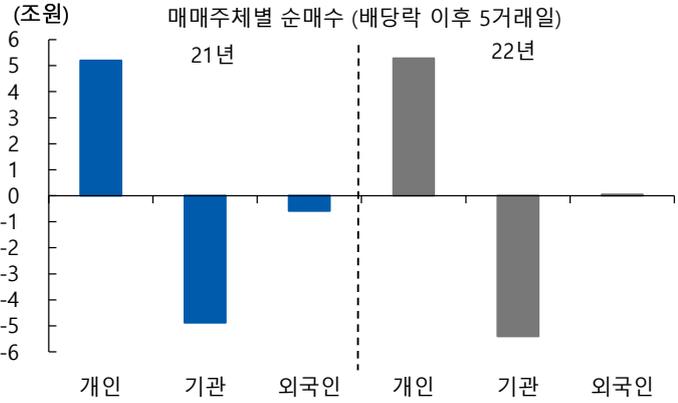
[차트6] 22년 연초, 한국증시 12M FWD EPS 증감률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주: MSCI Index 기준 자료: IBES, Datastrea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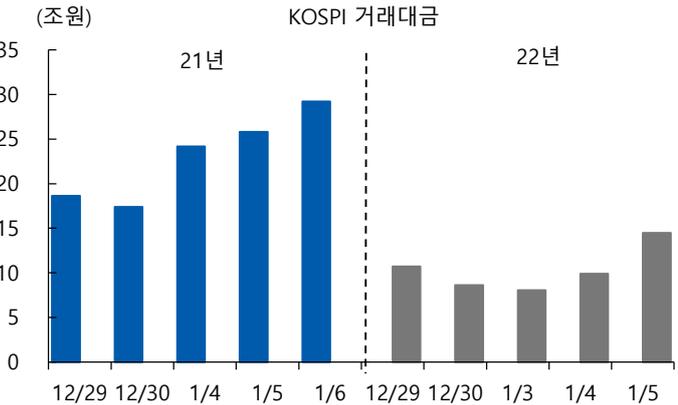
Key Chart

배당락 이후 5거래일, 5조원대 개인 순매수. 방향성 없는 외인, 기관의 매도는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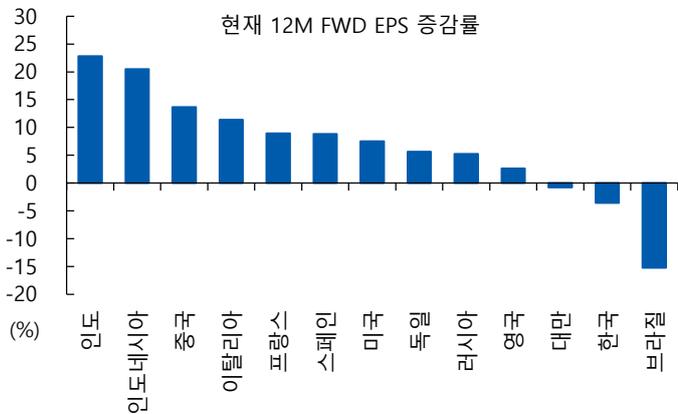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평균 거래대금 23조원. 21년 배당락 이후 5거래일 평균 거래대금 10.3조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2년 연초, 한국증시 12M FWD EPS 증감률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